

MIRAL

밀알

2014. 0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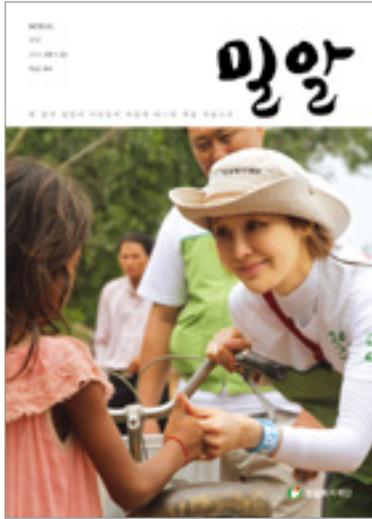
Vol. 44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썩을 틉웁니다



CONTENTS



Cover story

MBC <나누면 행복>을 통해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다녀온 배우 조안.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빈곤아동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며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나눔팀 이수호



밀알복지재단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46개 산하시설과 4개 지부를 통해 국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21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 지원, 이동진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명예이사] 노상헌, 박완철, 장형욱, 정현만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이종면, 정태충, 정형석, 최병우 [직업재활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귀자, 김명환, 류제룡, 박정열, 손만석, 이민철,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강영실,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명희, 정형석, 한정국 [전문위원] 김두현, 김미옥,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4. 09+10 Vol. 44

제호 밀알·Miral(통권 44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34, 2층(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드릭
www.miral.org www.twitter.com/miral1993 http://miralorg.blog.me www.facebook.com/miral4664

04	밀알서신	후원자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6	울림이 있는 그림	동물원
08	현장 이야기 1	배우 조안이 만난 캄보디아의 아이들
14	사연이 담긴 이야기	오늘도 살아간다. 슈퍼맨의 꿈
17	나눔후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해
18	현장 이야기 2	다시 보는 세상
22	마음으로 여는 세상 1	일상다반사
26	마음으로 여는 세상 2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28	현장 이야기 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통하는' 사람들
30	나눔 캠페인	굿월 기증 캠페인
32	특별한 만남 1	(주)올레 인터내셔널, 장민준 대표
35	특별한 만남 2	나의 해피 에너지
38	체험 이야기 1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42	체험 이야기 2	배우 하재숙, 밀알의 가족이 되다
44	밀알 News	법인사무국 소식 산하시설 소식
48	회원안내	선물보내기 캠페인 결과보고 / 회원공지
50	광고	제1회 에너지나눔 대축제,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51	회계보고	2014년 7월 ~ 8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후원자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밀알서신의 원고를 부탁받은 날부터, 아이고 거절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한편 지난 시간들을 또 돌이켜 보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변변한 기록이나 사진 한 장 없는 주제에 참 망설여졌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21년이 넘었고, 그 이전에 밀알선교단까지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긴 세월을 밀알과 관계해 왔습니다.

일을 했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내 자신의 무능력과 지혜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본받아야 할 분들이 함께 계심을 늘 자랑해 왔습니다.

나아가 밀알의 정체성 위에 투명함과 후원자님들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고 이루어지는 부끄럼 없는 밀알복지재단이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도 사업을 잘 수행해 내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복지단체에서도 우리들을 벤치마킹하도록 하는데까지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시설장들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교육에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 재단이 규모를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도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스텝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제가 2년 전 회사를 은퇴할 때 제 아들이 “아버지, 74세까지 일 하셨으면 됐으니 이젠 더 일 하실 생각마시고 사회봉사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다가올 결실의 계절을 기대하며, 밀알복지재단의 모든 가족들과 후원자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밀알복지재단 이사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정현만 丁鉉萬



동물원

얼룩말, 코끼리, 악어, 독수리...
 동민이는 좋아하는 동물들을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조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조류와 포유류가 한 공간에 있는 풍경.
 파란 하늘이 동물들을 감싸고 있을 뿐
 경계가 없는 세상.
 동물을 동물답게 하는 것은
 분류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미술에 천재성을 지닌
 밀알학교 고등부 3학년 신동민
 글 홍보팀 장혜영

동물원I, oil acrylic on canvas, 116x91cm, 2014

배우 조안이 만난 캄보디아의 아이들

사진 미디어나눔팀 배소진, 이수호 편집 홍보팀 오승길

우리재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배우 조안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MBC <나누면 행복>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져 재활용품을 줌는 짬에이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가는 엄마와 아이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 힘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모아블레 공원. 조안씨는 쓰레기가 가득한 손수레에 아이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옆에 서서 함께 걷어가는 남자아이는 무언가를 찾는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걸던 중 갑자기 사라지는 한 남자아이는 첫째 본 힘(15세, 남). 잠시 후 나타나 수레를 뒤쫓아 가는 힘의 손에는 어디선가 주워온 쓰레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손수레 안에는 쓰레기터미에서 주워온 빈 병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삼 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빠. 갑작스레 생계를 떠맡게 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째 힘은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학교까지 그만두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만 뒀어요.”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쓸 법도 한데, 고생하는 엄마를 먼저 떠올리는 힘은 그저 묵묵히 엄마의 일을 도울 뿐입니다.

자기 몸집만한 쓰레기터미를 등에 이고 있는 셋째 짠에이(11세, 여)는 엄마의 손수레가 닿지 않는 구석 구석을 살펴며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짠에이가 등에 이고 있던 봉투를 수레 위로 내리자 재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빈 페트병, 빈 캔,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는 고철덩어리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다 보니 사고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쓰레기를 줍다가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얼굴과 몸에 흉터로 남은 상처들. “무서웠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짠에이. 고작 열한 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엄마는 비가와도, 몸이 아파도 늘 쓰레기를 주우러 다닙니다. 그러나 생활은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이 거리를 헤매어야 할까요.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상황. 엄마는 거리에 나온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까 늘 마음을 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침에 좋은 옷 입고 학교 가는데...” 엄마의 눈에서는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이 이 가족에게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도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안씨는 공책과 스케치북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조안씨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조안씨가 직접 그린 다섯



직접 그린 다섯 가족의 그림을 선물한 조안씨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늘 빠듯한 가게 사정 때문에 단 한 번도 가족사진을 찍어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조안씨는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얼굴을 스케치북 위에 그렸습니다. 사진은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그림을 받아 든 가족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조안씨 그림 속의 다섯 가족처럼, 가족들이 늘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학교에 가고 싶은 뚜잇

1975년, 급진적 공산주의자인 폴 포트가 정권을 장악하며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킬링필드’로 인해 캄보디아 인구의 약 1/4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캄보디아에는 형제나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라(55세, 여) 할머니의 가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팔라 할머니와 세 아이들이 사는 곳은 킬링필드의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언동마을의 빈민촌.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집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 남편을 잃고 할머니는 홀로 행상을 하며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가는 곳은 캄보디아에서는 흔하고 값싼 채소인 ‘프러꾼’ 밭. 밭에서 캐낸 프러꾼 한 단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약 120원으로, 팔지 못하면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프러꾼을 파는 상인들이 워낙 많아 한 단도 제대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이 밭에서 프러꾼을 캐는 동안, 마을에 혼자 남은 뚜잇(7세, 남)은 큰 봉투를 들고 쓰레기터미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돕기 위해 재활용품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지나치는 학교. 뚜잇은 학교 앞을 그냥



학교 앞을 서성이는 뚜잇

지나치지 못합니다. 학교 대문 철창 사이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뚜잇. “학교에 가서 같이 놀고 싶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처한 상황은 왜 이리도 다른 걸까요?

빈민촌 안의 빈부격차는 밤이 되면 더 뚜렷이 드러 납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집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광등과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이웃집과는 달리 팔라 할머니의 집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혀주는 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호롱불. 밥을 먹고 아이들이 잠든 시간. 할머니는 아이들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설칠까, 고단함도 잊은 채 할머니는 아이들 돌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조안씨는 할머니의 집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안씨의 두 손에 쥐어진 것은 태양광 랜턴과 모기장. 커다랗게 펼쳐진 모기장이 마치 장난감이라도 되는 듯,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밤에도 아이들과 할머니가 모기의 방해 없이 푹 잠들 수 있겠지요? 할머니와 가족들이 좋은 꿈만 꾸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잡는 아이들, 뽀냐와 막카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한 시간 반 떨어진 땅끝 마을 ‘쑹크삿’. 햇벌이 내리찍는 평일의 한 낮, 학교에 있어야 할 어린 아이들이 냇가에 있었습니다. 뽀냐(13세, 남)와 막카라(10세, 남). 고작 열세 살, 열 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냇가에 나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하는 아빠가 일을 하기 위해 몇 달씩 집을 비울 때마다 생계를 책임 지기 위해 냇가로 나오는 아이들. 뽀냐는 일을 하기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었습니다. 물고기 1kg를 잡아 올리고 버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삼천 원 동이 트기 전 부터 냇가로 나온 아이들은, 정오가 되어서야 엄마와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집에는 뽀냐와 막카라를 포함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판자를 기워놓은 듯 이어붙인 집은,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천장이 없는 듯 집 안으로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쏟아진 비를 그대로 맞은 막내 빠사이다(1세, 여)의 몸에는 열꽃이 가득 피어있었습니다. 같이 비를 맞은 쓰라이다(8세, 여)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사흘 째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쓰라이다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걱정이 되면서도 쉽게 병원을



물고기를 잡고 있는 막카라



자전거를 선물받은 아이들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만원에 불과한 이들에게, 주사 한 번 맞는데 7천 원 이상이 드는 병원을 찾기로 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안 씨는 그런 쓰라이다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은 이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쓰라이다가 장염에 걸린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에 엄마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지켜 본 조안씨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오후, 조안씨는 가족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튼튼하고 안전한 자전거. 학교도, 병원도 멀지만 한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전거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순 없지

만, 아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전거를 본 아이들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웃음 꽃. 아픈 쓰라이다 대신 첫째 뽀냐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뽀냐의 몸집보다 조금 커다란 자전거지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 거침없이 페달을 밟습니다. 뽀냐의 미래도 썩썩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앞으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기. 약속!”

힘든 삶 속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더욱 많아 지기를 바랍니다. **이양**



오늘도 살아간다, 슈퍼맨의 꿈

글 홍보팀 김미란

띄엄띄엄 말하지만, 행복한 아이

3살 무렵,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눈도 잘 맞추지 않았다. 걱정이 된 아빠는 병원을 찾았고 지적장애 3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다.

준영이(8세, 남)는 올해로 여덟 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 살을 살고 있다. 띄엄띄엄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힘들게 나열하지만, 준영이는 밝게 미소짓는다. 함께 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해 주는 넓은 품, 아빠가 있기 때문이다. 준영이에게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맨이다.

슈퍼맨에게 찾아온 위기

아빠에게 찾아온 위기는 슈퍼맨 영화에서처럼 간단하게 해결 되지 않았다. 6살 무렵 엄마와 이혼하고, 사업의 부도로 4억의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지만 아빠에겐 희망이 있었다. 준영이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아빠를 살아가게 했다. 아빠는 꾸준히 돈을 벌고, 지금 까지도 공장에서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 몸을 다쳐 무리하게 일 할 수도 없는 상황.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만 10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수입으로 준영이의 치료비까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준영이를 위해, 우리가족을 위해 매일 일을 나가지만 준영이가 아프기라도 한 날에는 그마저도 힘들게 되죠.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준영이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월급으로는 더 이상 언어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웃 한 벌 사 입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더 빨리 치료를 시작했다면, 벌써 문장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준영이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슈퍼맨의 꿈

“소원을 묻는다면 아들이 문장형태로 이야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쉬운 일이지만 우리 준영이에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니깐요. 모든 이들에겐 평범한 것이 우리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됩니다. 말하는 것, 그래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랄 것이 없지요.”

언어 및 감각통합치료와 놀이치료 등을 받으면 준영이는 문장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영이와 아빠, 슈퍼맨 가족에게 용기를 주세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망향**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근처 초등학교에 특수반이 있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준영이는 밝아졌다.

“애 엄마와 이혼한 후에는 한동안 더 말이 없었죠.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가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하지만 준영이는 아빠의 사랑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밝아져 학교의 아이들,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초등학교의 특수반을 통해 받게 된 미술치료. 이전보다 더 활발히 이야기 하려고 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는 치료. 하지만 아빠의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준영이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해

글, 사진 지원사업팀 김래홍



연극도 보러 갔어요!

밀알 43호 소식지에 소개된 하영이는 ‘백질연화증’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과사되는 백질연화증은 하영이에게 뇌병변 장애를 안겼습니다. 또래가 걸음마를 떼던 시기, 걷지 못하는 하영이를 데리고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엄마. 하영이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의 비용이 들었지만, 하영이네 부모님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아이인 하영이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비해 운동신경과 인지능력이 부족하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날로 좋아지는 하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기대해보았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사회에 기여하고, 제 몫을 다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소망을 가진 하영이네 가족,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영이는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걷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생긴 하영이는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입니다. 현재 하영이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음악치료와 언어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며 날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참여한 덕분에 이제는 장애물 없는 도로를 제법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영이에게 높은 산 같기만 하던 계단도 양손으로 난간을 잡으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으로 향하는 하영이가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말합니다. 너무나 흔한 말, 하지만 하영이에게 너무나 어려웠던 말. 엄마는 하영이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입니다. 하영이가 길을 걷고, 유치원에 다니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날로 좋아지는 하영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영이의 내일이 자꾸만 기다려집니다. 하영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 하지만 하영이네 가족에게 그토록 바랐던 행복한 삶. 하영이를 위해 사랑의 손길로 따뜻함을 전해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영이네 가족의 소망처럼,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하영이의 이야기가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망향**



다시 보는 세상

글 Closer 콘텐츠활동가 김국화

사진 Closer 콘텐츠활동가 김국화, 홍보팀 장혜영, 사진작가 정지필

출품 작가 김기혁, 김정우, 김지우, 박시현, 신동민, 유동혁, 이인석, 임희경, 전민재, 한승민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훌륭한 학력이나 거창한 기량이 아닌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술가다. 전시회 '2014, 봄(Seeing&Spring)'을 통해 조금은 낯설고도 특별하게 삶을 바라보는 10명의 예술가들을 만나보았다.

타고난 예술가들

전시회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지개 같기도 하고 불꽃 같기도 한 화려한 빛깔이 전시회장 안에 가득했고 언뜻 봐도 정갈하게 벽에 걸린 그림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회 '2014, 봄(Seeing&Spring)'의 참여작가는 발달장애아동들이다. 이 전시회는 사회성의 결핍이라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예술과 만났을 때 어떠한 재능으로 재탄생 되는지 보여준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이 전시회의 참여작가들은 타고난 예술가들이다. 그림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주입된 세상이 아닌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oil pastel on paper, 77x54cm, 2014, 김기혁

그림으로 엿보는 그들의 세상

오물조물 손으로 만들어진 종이 인형들은 진짜 생명이라도 얻은 듯 생동감 있는 모습이다. 멸종된 지 오래된 공룡들은 신문지 위에 그려져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다른 듯 똑같이 생긴 여자들은 각각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는 미모를 뽑내는 듯 하고, 동그랗고 반듯한 선으로 그려진, 세상 유일무이한 오랑우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뱀과 용의 그림 위에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있어 한참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유의 표정이 유난히도 개성 강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고 싶어진다. 동그라미 가득한 전기판은 하나의 지도처럼 눈을 사로잡고, 형형색색의 네모머리로 선생님을 그린 그림에서는 귀여운 존경심이 느껴진다. 작은 블록들 위에 그려진 동물들은 아기자기하고, 상상의 한 부분인지, 읽은 책의 일부분인지

용들이 하트가 있는 마을을 공격하는 그림은 시원 시원하다. 각각의 그림마다 의도되지 않은, 순수하게 보고 느끼는 세상 그대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나의 세상이 어떻게 비춰질지 자주 의식하곤 한다. 그리고 나의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까 봐 감추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사람에 따라 호감을 살 수 있는 모양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내가 그리는 세상의 주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인정이나 수용이 되어버릴 때도 많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이들의 그림을 통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본 것 같다. 누군가의 호감을 사려고, 혹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계산된 세계가 아닌, 여과 장치 없는 내면의 세계 그대로 말이다. 세상은 이들의 결핍을 문제로 보았지만, 이 10명의 작가들에게는 자신이 보는 세상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아닐까.

편견을 넘어 이루는 꿈

전시장 한 가운데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엮어 만든 커다란 네모 모양의 나무 구조물이 놓여 있었다. 나무 막대기 사이 정사각형 공간에 전시회 방문자들이 색칠한 그림들을 꽂아 두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 각각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작가들의 그림이 다채로운 색으로 덧입혀져 아주 새로운 그림이 되었다. 10명의 작가들이 그 그림들을 본다면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지금보다 그림 그리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소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두가 꿈을 이루지는 못한다.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통계나 정해진 기준, 혹은 뛰어난 누군가와와 비교를 통해 자신을 냉정히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결국 꿈은 꿈으로 남겨둔 채 알맞은 현실을 대안으로 찾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10명의

순수한 예술가에게서 희망을 본다. 스스로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봄(Seeing&Spring)

전시회장을 쪽 둘러보고 나니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겼다. 그 동안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었던 걸까. 세상은 이들을 제한할지 몰라도, 정작 이 10명의 작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았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세상에 지레 겁을 먹고는 몸을 사리는데 급급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나도 그렇게 나의 세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나의 세상에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때에는 타고난 예술가인 이들의 모습을 조금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전시회 '2014, 봄(Seeing&Spring)'을 통해 깨닫게 된다. 진짜로 지금부터 새로운 '봄'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이다. **망향**



'2014, 봄(Seeing&Spring)'에 참여한 작가들의 사진



일상다반사

발달장애인의 하루를 만나다

글 홍보팀 오슬길 그림 재능나눔 장이안 도움 밀알학교 교감 김용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밀알학교 중등반 교실을 찾았다. 오늘 만난 아이들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진운(가명)이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현수(가명),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현(가명), 같은 자폐성 장애인이지만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민규(가명).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기억, 미술 등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증후군.

낮선이의 등장에 지적장애를 가진 진운이는 호기심을 보였다. 생글생글 웃으며 먼저 다가오더니 인사를 건네며 덩싹 손을 잡고 나를 이끌었다. 그에 비해 자폐성 장애를 가진 민규는 내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민규에게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민규는 대답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눈이 마주쳤다가도 얼른 눈을 피해버렸다.

점심시간.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주변을 빙빙 도는 아이는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현수. 주의를 주는 선생님의 말에 의자에 앉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옆에 앉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민규는 가만히 앉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식판을 갖다놓으려는 민규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중간에 끼어 들어가 식판을 갖다놓으려고 했다. 그러다 선생님의 지적에 민규는 다시 뒤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 민규는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아주 잘 따르는 듯 했다.

소란스런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수업이 진행 될 교실로 들어갔다. 이번 시간은 음악 수업.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 제목을 맞추게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퍼즐 모양으로 된 노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며 1등에게는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오늘의 1등은 우수한 기억력을 가진 민규. 뭐든지 잘 기억하는 민규는 예전엔 수십가지가 넘는 식당 메뉴를 다 외우 기도 했었다. 오늘도 민규는 특출난 기억력으로 음악선생님이 문제를 내기 무섭게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민규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동현이는 단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다. 수업시간 내내 자신의 손에 쥐어진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그것에만 집중할 뿐,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동현이와 마찬가지로, 흥미를 잃은 듯 가만히 앉아있던 진운이는 자원봉사자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의 말을 반복하자 연필을 집어 들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진운이의 퍼즐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원봉사자의 격려에 진운이는 노래 제목을 다 적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수업을 받는 일부 아동들은 선생님의 도움에도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현수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런 현수의 팔에 보이는 상처들. 반바지를 입어 드러난 맨 다리에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붉은 상처들이 한가득 이었다. 모두 스스로 만든 상처들. 자해 행동은 일부 지적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현수는 선생님의 말에 억지로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일부 지적장애인은 급격한 감정의 기복을 겪기도 한다. 서럽게 울던 현수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멈추고 다시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퀴즈가 끝나고 음악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선물로 과자를 나눠주었다. 나눠 주자마자 무섭게 다 먹어버린 현수. 아이들은 아직 반도 먹지 않은 과자인데, 현수의 자리 위엔 잔뜩 구겨진 빈 껍질만 나뒹굴고 있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진운이는 그런 현수에게 자신의 과자를 선뜻 건넸다. 뒤를 돌더니 내게도 과자를 건네주려는 듯 눈을 맞추며 웃어왔다. “지금 먹어도 되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민규는 선생님께 먼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취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

수업이 끝난 후, 민규를 따라가 보았다. 방과 후 활동을 위해 혼자서도 척척 가방을 챙긴 민규. 그런데 갑자기 민규가 크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집에 있어야 할 엄마를 교문 앞에서 만났기 때문이었다.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당황해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 엄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엄마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시 민규를 발견한 곳은 엄마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에서였다. 화가 난 듯 나쁜 말을 하던 민규는 결국 엄마에게 혼이 나고 말았다. 잠시 잠잠해진 민규. 하지만 침묵도 잠시, 엄마에게 최근 개봉한 영화를 보러가자며 조르기 시작한다. “엄마, 8월 15일에 개봉하는 이차원의 저격수 보러 가요.”, “엄마, 8월 15일에 개봉하는 이차원의 저격수가 보고싶어요.” 확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던 민규는, 엄마가 내 건 제안에 수긍하고 조르기를 멈췄다. 그것도 잠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엄마의 말에 민규는 다시 반복하기 시작한다. “엄마, 8월 15일에 꼭 이차원의 저격수 보러 가야 해요.”

“엄마가 데려다 줄까? 아니면 지하철 타고 혼자서 갈래?” 민규는 주저 없이 후자를 택했다. 그 날은 비가 왔고 한 손엔 우산을, 나머지 한 손엔 짐을 들고 있는 민규의 손엔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민규 혼자서 이동하는 날이었으므로,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민규를 엄마도 말릴 순 없다. 결국 엄마와 인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러 온 민규. 걸음으로 보기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지하철 표를 능숙하게 사고, 카드를 찍고 들어가 지하철이 오기까지 얌전히 기다린다.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은 지하철, 민규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옆자리엔 메고 있던

가방과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놓았다. 다음역에 도착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지듯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다. 한 중년 남성이 민규의 옆자리에 앉으려 다가온다. 하지만 민규는 요지부동이다. 중년 남성은 민규에게 옆자리에 놓은 짐을 치워달라는 듯 말을 걸었지만, 민규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가만히 앉아있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열차 안의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하지만 민규 옆자리는 여전히 민규의 가방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민규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사람들. 열차 안의 사람들 중 민규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사람이 있었을까.

※ 취재에 협조해주신 밀알학교의 학생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2%**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편집 홍보팀 오슬길 도움 밀알주·단기보호센터 소장 김인향

장애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율로 놓고 보았을 때, 발달장애인의 비율(80.4%)은 시각장애인(20.5%)이나 지체장애인(13.6%)보다 월등히 높다(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나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인구 대비 취업률도 전체장애인구 대비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발달장애인의 비율 또한 매우 낮다. 발달장애인은 결정, 선택 등 스스로의 권리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우울증 지수는 일반인의 약 세배를 웃돈다.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의 목숨을 먼저 거둬주세요.” 한 장애아 어머니의 슬픈 기도.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길을 잃은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길을 잃어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발달장애인을 진정시킨 뒤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국번없이182)'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로 전화하면 된다. 현재 상황과 위치를 설명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한눈을 파는 사이 발달장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갑자기 소리를 낼 때

발달장애인은 낯선 상황을 두려워한다. 낯선 장소, 처음 보는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절차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갑자기 소리를 내는 행동도 불안에서 나온 행동 중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 발달장애인이 놓이게 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말을 걸어도 무시할 때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일부 발달장애인은 낯선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는 사회성이 낮아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폐 범주성 장애의 행동 특성 중 하나로, 일부러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 의사를 물어볼 때

일부 발달장애인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끝을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답일수도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물어볼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대답을 들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저렇게 하고 싶어?”처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묻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분명한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발달장애인은 순간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언어적 주의가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 화기나 달려오는 차량 등에 가까이 있을 경우, “피해!”라는 말을 하는 것 보다는 팔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발달장애인이 열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운동능력이 다소 느린 일부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하게 될 경우 재촉하거나 일을 대신 해 주기 보다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해낼 때 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좀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줘도 좋다. 또한 일부 발달장애인은 어떤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쉽게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반복적인 격려와 칭찬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좋다. **밀알**



심청이는 병원에 가야지, 왜 물에 빠지는 거죠?

동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래동화를 들려 준다는 조경숙 전통문화지킴이 어르신. 어느 날은 심청전을 읽어줬더니 “이상해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야지. 왜 물에 빠지는 거죠?”라고 말했다. 효심과 같은 고유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를 읽어주며 아이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조경숙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오히려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자, 손녀가 미국에 있어서 ‘전통문화로 통해요’ 교육으로 만나는 어린이 집 아이들을 손자, 손녀라는 생각으로 만난다는 그녀. 오늘은 북과 팽이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찾았다.

‘전통문화로 통해요’ 교육은 일주일에 1번, 전통문화 지킴이 어르신이 2인 1조로 한 곳의 어린이집을 찾아가는데, 민요를 부르며 한 분은 북을 치고, 한 분은 손동작을 가르쳐 주셨다. 이인숙 에코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훨씬 여유가 생기고 안정되어 진 거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전통문화 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친구가 방귀를 뀌면 “더러워”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밀보리 방귀 노래를 배운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아이들은 장구, 북 등이 그려진 이미지 카드를 보며 예습, 복습을 했고 그래서지 어르신들이 교육 때 가지고 오는 전통악기의 이름을 척척 말하기도 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전통문화지킴이를 자원했다는 흥은표 어르신.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으로 그녀는 ‘실뜨기’를 말했다. 실을 두 손에 끼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실뜨기를 아이들은 미술처럼 생각한다고. 가볍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손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실뜨기는 두 명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완성하고 난 후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한번은 실뜨기를 하다가 실이 끊어졌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고. 실수로 실이 엉켜도 즐거운 것이 전통놀이가 아닐까. 경쟁적이기 보다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놀이라서 그런 것 같았다.

전통문화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보자.”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내일 봐요.”라고 말한다. 전통문화 지킴이 어르신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역할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통문화로 통해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현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제 2의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서초구는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칫 은퇴 후에 상실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통문화로 통해요’ 사업에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노후에 봉사를 하기 위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이 된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외에도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진 어르신들이 재능을 나누고 봉사하는 자발적인 지역 활동가 모임, 드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었다. 문화예술나눔 봉사단, 지식나눔 봉사단, 지역섬김 봉사단, 정나눔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합창에서부터 특강, 멘토링, 장수 사진 촬영, 배식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었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밀알복지재단의 이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 세대 통합과 지역개발을 실천하고 있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지킴이 어르신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과도 ‘통하는’ 복지관이었다. **양향**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로 통해요’ 사업 현장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글. 사진 흥보팀 장혜영

어린이집을 다니는 4살 시은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리랑이다. 전통문화지킴이 어르신은 북장단에 맞춰 들썩들썩 손동작을 하고, 집에 가서도 민요를 흥얼거린다는 시은이.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전통문화 지킴이 어르신단을 구성해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서초구의 가정어린이집 9곳에 어르신들을 파견해 우리의 문화를 전수하고 있다. 2014년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문화로 통해요’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았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밀알복지재단 전 직원이 참여한 '굿윌 기증 캠페인'

글, 사진 홍부팀 오슬길

밀알은 7월 15일(수)부터 7월 22일(화)까지 법인사무국과 산하시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굿윌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 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7월 15일 밀알복지재단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굿윌 기증 캠페인'은, 밀알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굿윌캠페인을 통해 모인 물품들

법인사무국의 물품을 수거하던 7월의 어느 날, 기증 봉투에 가득 담긴 물건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와 두터운 이불, 책, 헬스 기구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 물건들이 봉투 위로 빼꼼 고개를 내밉니다. 혹시 새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물건들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한데 모인 사연은, 바로 밀알복지재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굿윌 기증 캠페인' 때문입니다. 우리재단은 지난 7월 15일,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법인사무국과 산하시설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굿윌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증 봉투와 기부금 영수증, 안내 브로슈어가 담긴 '기부 키트(kit)'가 직원들에게 배부되었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집안 구석구석 잠들어 있던,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물건들을 찾아 기증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인 물품들이 총 4,292점. 이를 판매금으로 환산하면 약 8명의 장애인들에게 한 달분의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인 물품들은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에 전달되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의류부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개인이 기증한 중고물품과 기업이 후원한 새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중고물품을 기증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기증한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지요.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겁니다. 굿윌스토어는 이 좋은 가계에 더 좋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굿윌스토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굿윌스토어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이 물건을 포장하고, 계산을 하고, 쓸고 닦으며 매장을 관리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굿윌스토어의 슬로건은 '자선이 아닌 기회를!'입니다. 물건을 기증하는 것만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기부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거기다가 장애인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한다면, 굿윌스토어를 찾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밀알이 운영 중인 굿윌스토어는 총 3개로, 서울의 송파점, 도봉점과 9월 말 문을 열게 될 전라북도 전주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찾으시면 찾을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윌스토어. 지금, 가까운 굿윌스토어에 들려 쇼핑 어떠세요? **밀알**

기증문의

-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그가 외치는 ‘나눔’의 메아리

(주)올레 인터내셔널 장민준 대표의 나눔 이야기

글 홍보팀 오솔길
사진 홍보팀 오솔길, (주)올레 인터내셔널

“자랑하면 뭐 어떨까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옛 말처럼 우리사회는 선행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긴다. 하지만 장 대표는 반문한다. “나눔은 알릴 수록 더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내 친구나 주변에 알리자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록 나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2013년부터 우리재단과 함께 ‘플러스하트캠페인’을 진행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올레 인터내셔널의 장민준 대표를 만났다.

지금의 ‘올레 인터내셔널’이 있기까지

장민준 대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방향의 시기를 꺾어야 했다. “운동도, 공부도 둘 다 안 됐으니까, 두려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세상에 뛰어들었다. “군대 가기 전까지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되었죠.” 성공한 기업가, 처음부터 물려받은 자본이나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십원 한 푼 물려받은 것 없이 시작했어요.” 8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 옷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기에 무조건 열심히만 했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상품은 백화점 등 각종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며 회사의 규모는 날로 커져갔다. 당시 장 대표의 나이가 삼십 대, 어렸던 탓에 남에게 그럴 듯해 보이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그 탓에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결국 회사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장 대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일 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오면 속옷차림으로 몇 십 킬로그램이 넘는 박스를 옮기기도 했었죠.” 장 대표는 그 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사 이익 잘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 행복 찾기, 나눔

장 대표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신설동에서 노숙자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보고 시작하게 된 일. 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내 행복 찾기”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짊어지고 있던 고민들이, 그 곳에 가면 모두 없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집과 멀리 떨어진 신설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고향인 청량리와 가깝기 때문. 장 대표의 아버지는 청량리에서 복덕방을 하며 동네 통장일을 했었다. 당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 아버지의 사업장이자 가장 변화한 곳이었는데, 그 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선뜻 내주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곳에 가면 ‘장씨 막내 왔다’며 귀여움도 많이 받았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눔이 흘러내려 온 거라고 할까요.”

나의 해피 에너지

후원자 임효진씨와의
행복한 만남

글, 사진 홍보팀 오솔길



특별한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

밀알과의 인연은 작년 초, 거리캠페인을 통해서였다. “처음엔 매 월 만원씩 후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 년 했나, 문득 밀알에 대해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죠. 매마침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특별한 선물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 대표는 밀알에 아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 당시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 “흔쾌히 동조하긴 어려웠어요. 그 전에 그런 일(기부)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됐었죠.” 신중한 성격의 아내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거다. 돕자.’는 남편의 말에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

“(아내가) 웃으면 더 예뻐요.”

금실 좋은 두 부부의 인연은 장 대표의 6개월이 넘는 끈질긴 구애 끝에 이루어 졌다. 사명이 ‘올레 인터내셔널’인 이유도 아내의 고향인 제주도를 떠올리며 지었다고. 인터뷰 내내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신혼처럼 애정을 과시했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목표

사실 의류제조업은 하향세를 겪고 있다. 높아진 인건비 탓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올레 인터내셔널은 그러지 않았다. 중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장 대표는 올레 인터내셔널이 ‘느리게’ 커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다. 규모나 매출을 단시간에 확대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통련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자녀들이 ‘아빠 회사는 어땠어?’라고 물어봤을 때, 자랑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이 되고 싶냐는 물음에 장 대표는 ‘내 아이에게 자랑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직원 복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올해로 15년을 맞이한 올레 인터내셔널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많은 것에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

장 대표는 나눔을 ‘메아리’라고 표현했다. “멀리 퍼져나가고, 또 나에게 되돌아 오는 거지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고, 그것이 지금의 성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크게 외친 메아리가 다시 되돌아오듯, 지금 실천한 나눔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 믿는 장 대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올레 인터내셔널이 펼쳐나갈 나눔의 메아리를 기대해본다. **인양**



장민준 대표와 아내 강문정씨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와! 그런 멋진 일이 있어?” 효진씨가 대학생이던 시절, 같은 과 친구가 우편물을 받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친구의 친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아이의 편지. “월 3만원씩 후원하면, 애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거야.” 당시 1 : 1 결연후원을 하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 효진씨 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매일 보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당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인지라 쉽게 시작하기 어려웠던 상황. 설불리 시작했다가 후원을 중단하게 되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후원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미지컨설팅 회사의 수석연구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안녕, 라나니

효진씨가 후원하는 아이는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열 두 살 라나니 벨루. 효진씨는 아동에게서 처음 받았던 편지의 감동을 기억한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프랑스어와 말라가시를 쓰는 마다가스카르인지라 다소 서툰 영어와 뻘뻘뻘한 글씨가 적혀진 첫 인사가 담긴 편지. 아이는 장래에 축구선수가 되어 공을 가지고 운동장을 누비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효진씨는 훗날 라나니를 만나면 축구화를 꼭 선물해 주고 싶다고 했다. 맨 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라나니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게다가 열 두 살임에도 우리나라 또래들과 달리 자그마한 체구. 나이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라나니가 여섯, 일곱 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효진씨는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나중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라나니를 만난다면, 한국에서 파는 맛있는 것들을 잔뜩 사가고 싶어요.”



효진씨와 결연을 맺은 마다가스카르의 라나니

해피 에너지

효진씨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상하게 기운이 났다. 효진씨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기분이었다. 효진씨의 해피 에너지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누구보다 혹독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저는 이른바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이었던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공부하는 것 보단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효진씨의 어머니는 단 한번도 효진씨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혼낸 적이 없었다. 그저 효진씨를 믿어주셨을 뿐이다.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곧 선생님들의 실적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으셨죠. ‘네 대학 가봤자 등록금만 버리고 오는 거다’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효진씨 인생의 첫 목표, ‘대학교 진학’.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목표대로 대학교 진학에 성공했다. “목표했던 것이 이뤄지니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했어요.” 성취감의 짜릿함을 맛본 효진씨는 그 이후로 작은 목표들을 세우며 하나씩 이뤄나갔다. 대학에 가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전공과는 다른 일이지만 하고 싶었던 일도 찾았다.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회사로 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했다. “마음가짐에 따라 일도 좋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돌고, 다시 돌고

“나눔은 어떻게든 돌아오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도, 다 나눔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라나니를 돕고 있지만, 라나니도 제가 힘들 때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 처럼요.” 베푼 만큼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효진씨. 그래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재능기부도 하고 싶어요.” 효진씨에게는 목표가 또 하나 생겼다. 대학생이던 효진씨가 후원을 하던 친구를 보고 했던 말처럼, 누군가가 효진씨의 나눔을 보며 “와, 그게 그렇게 멋진 일이야?”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효진씨의 해피 에너지를 세상에 널리 퍼뜨릴 그 날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양**



길이 끝고 낭만적인 감고당길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안국역 주변

글 작가 정지영 사진 작가 정지영, 홍보팀 장혜영
활동 Closer 서포터즈 김찬걸, 김태훈, 유경재, 이선화, 조영훈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착한 가게,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설만한 장소 등을 찾아 지도로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 만한 곳들을 미리 지도로 만든다면 그들의 소풍은 조금이나마 즐거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도착하는가’가 모든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듯이 장애인들에게도 ‘무엇을 타고 어떻게 이동하는가’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일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는데 장애물이 줄어들수록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경복궁’ 편에서 처음 소개한 ‘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는 서울메트로에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마련한 좋은 서비스이다. 전화나 문자 한 통이면 출발역에서부터 도착역에 내려 역에서 나갈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여행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런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안국역에서도 ‘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닥에 설치된 유도블럭과 점자 안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6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다.

유명하지만 장애인에겐 너무 어려운 인사동

인사동은 여러 가지 볼거리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유명한 이 거리는 수많은 매력으로 비장애인에게는 좋은 곳으로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게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매력이 가려질 지도 모르겠다.

먼저 주말에 이곳에 방문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동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엔 차량이 다니지 않지만 그것이 별 상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거리가 뻑뻑하다. 작은 가게들 위주의 상권이 형성된 것도 장애인들에게는 반갑지 않다. 작은 가게들 대부분은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줘서 장애인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화장실인데 대형 건물 많지 않아 들어갈 만한 화장실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씬지길은 인사동에서는 대형 건물 중 하나라 희망을 걸만도 하지만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규정에 맞게는 설계되었겠지만 그곳에서 만난 장애인의 말에 따르면 회전이나 진입을 고려하지 않아 불편하고 여자화장실 한 칸에 위치하고 있어 남자가 들어가기 곤란하다고 말해주었다. 이왕 규정에 맞게 설치할 거라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지 못할 볼거리가 넘친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릴 만한 선물을 사고 싶을 때, 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를 산책하고 싶을 때엔 인사동만한 곳이 없으니 말이다. 그 매력적인 곳에 장애인이 갈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고촌화랑이라는 곳은 길 쪽으로 창이 나 있고 가게 안으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사동길



무료 전시를 하는 아라리오 갤러리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그래도 기타소리를 들으며 멋진 돌담길을 지나는 기분은 다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기쁨이다.

감고당길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중대형 미술관들이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턱이 낮아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입장할 수 있으며 1층을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2층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독도서관 앞의 선재아트센터는 경사로를 이용해 입장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 층을 관람할 수 있다. 새롭게 개장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대형 미술관답게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다. 입장을 비롯해 이동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다른 미술관이 주차가 불가한 것에 비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주차가 가능한 점도 좋았다. 여기 소개한 미술관은 장애인에게 모두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니 꼭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들어가지 않고도 도장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사동에서 식사를 해결하려 한다면 추천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다. 모두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들이니 맛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고 할 만하다. 먼저 '정선할매 곤드레밥'은 간장계장 및 한정식을 주메뉴로 하는 곳인데 턱이 없어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며 좌석으로 휠체어로 식사하기에도 적당하다. '최대감네'는 상추 사브사브로 유명한 곳인데 역시 턱이 없고 좌석으로 되어 있다. 인사동에서 꼭 한식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안다미로'도 턱이 없어 휠체어로 출입이 가능해 추천할 만하다.

매력 넘치는 감고당길

안국동 사거리에서 정독 도서관을 향해 나 있는 분위기 좋은 돌담길을 '감고당길' 이라고 한다. 이 길에는 소품을 파는 작은 노점상들과 기타연주와 노래를 하는 길거리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어 안국역 주변의 멋진 곳들 중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있는 장소로 꼽을 만하다. 거의 경사가 없으면서도 길이 평평하게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다니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도 큰 장점이다. 사람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들에 비하면 이동이 자유로운 편. 정독도서관으로 가까워 질수록

북촌 한옥마을과 계동길

만약 휠체어를 밀어줄 힘센 친구와 함께라면 계동길과 북촌 한옥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 이곳은 다른 곳보다 비교적 사람이 적고 덜 상업화 된 곳이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다. 다만 경사진 길이 몇 군데 있어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계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중앙고등학교에 올랐다가 다시 북촌 한옥마을로 돌아내려오는 코스는 한 두 군데 급한 경사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꼭 방문해 볼 만한 코스다. 만약 휠체어로 이동이 어렵다면 계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 관광안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인력거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자전거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해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것인데 역사적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작은 가게들과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골목길의 풍경은 산책을 하는 내내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해가 누엣누엣 저무는 늦은 오후라면 더 좋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중앙고등학교 주변의 급격한 경사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의 기쁨도 가장 크다. 중앙고등학교는 오후 6시까지 일반에 개방하고 있는데 역사 깊은 학교답게 운치 있는 교정을 둘러본다면 경사로를 올라온 보람을 느낄 만하다. 산책이 조금 힘에 부친다면 중앙고등학교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중앙고등학교를 지나 왼쪽으로 가는 경사로는 오르는 것도 힘이지만 내려오는 것도 꽤나 위험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돌아와 계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그 주변을 둘러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편의점과 유기농 제품 가게, 길에서 바로 사먹을 수 있는 프레즐 가게,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위치하고 있어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주변을 고려해보면 좋다. 다만 인도가 조금 좁은 편인데 지나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없는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

주차정보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주차가 고민일 수 있는데 의외로 아주 저렴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SK허브 빌딩 주차장은 장애인에게 50% 할인혜택을 줘 시간당 3천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트윈트리타워 주차장은 주말의 경우 종일 5천원에 이용이 가능하고 빌딩의 커피숍이나 식당을 이용할 시 6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총 평 안국역 주변의 인사동과 삼청동 일대는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직한 도로와 볼거리 때문에 산책은 충분히 즐겁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 넘치는 곳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볼거리 가득한 삼청동 거리까지 가깝다는 점도 더한다면 안국역 주변은 소풍 장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곳 중 하나로 기억해둬야 할 것 같다.

접근성: ★★★★★ 편의성: ★★★★★
재미: ★★★★★ **이양**



- 휠체어 이동이 쉬운 도로
-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도로
- 먹거리 / 카페
- 볼거리 / 미술관
- 즐길거리
- P 주차
- Ⓜ 엘리베이터



배우 하재숙, 밀알의 가족이 되다

글 홍보팀 오슬길 사진 홍보팀 장혜영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8월 5일(화), 우리재단의 산하기관인 강남구직업재활 센터에서 배우 하재숙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배우 하재숙씨는 ‘무자식 상팔자’, ‘빛과 그림자’, ‘파스타’

등에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며 우리에게도 명품 조연으로 익숙한 분입니다. 특히 하재숙씨는 최근 방영되었던 SBS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에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하명’ 역을 맡으며 실제 발달장애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리얼한 연기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재숙씨는 우리재단과 인연이 깊은 배우로, 지난 2011년에는 ‘회색리본달기 범국민운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촉진하는 인터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재숙씨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뵈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우리플러스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도 위촉식에 참석해 홍보대사가 된 하재숙씨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정형석 상임대표는 평소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왔던 하재숙씨를 보며 환영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이후 정형석 상임대표로부터 위촉패를 받은 하재숙씨는 “평소 도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더 감사해요. 제 작은 도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날의 위촉식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꽃보다 당신, 하재숙을 알고싶다> 토크쇼! 평소 하재숙씨에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재숙씨를 향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품 연기로 유명한 하재숙씨인 만큼 배우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하재숙씨는 ‘잘 키운 딸 하나’에서 발달장애인 역할을 맡았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장애인분들께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만큼 역할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던 하재숙씨. 그래서일까요, 시청자들에게 발달장애인 ‘장하명’역이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재숙씨가 생각하는 나눔이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나눔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봉사를 가서는 장애인분들께 배운 것이 더 많았어요. 봉사를 하는 내내 알게 모르게 그분들께 도움도 받았어요. 서로의 장점을 교류하는 것이 나눔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재숙의 희망베이커리

위촉식이 끝난 후, 파티쉐로 변신한 하재숙씨! 하재숙씨는 근로장애인 및 지역 아동들과 함께 ‘희망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날 하재숙씨는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케이크를 만들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에도 하재숙씨는 “연기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장난기 어린 농담을 던지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재숙씨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반성을 많이 했어요.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다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제가 장애인분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보니 장애인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게 일하시는 장애인들을 보며 저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하재숙씨는 우리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해가는 ‘플러스하트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하재숙씨의 홍보대사 활동이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법인사무국 소식



01 '2014 장애인권교육용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열려

7월 7일(월), 사단법인 장애인권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우리재단과 CJ E&M이 후원한 '2014 장애인권교육용 그림책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상은 전해지씨의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가 선정되었으며, 이은주씨의 <내 이름은 '나'예요>가 우수상을 받았다.

02 SK건설 임직원 가족과 '친환경 나눔' 봉사활동

7월 12일(토), SK건설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은 강남구직업 재활센터에서 태양광 랜턴과 천연비누 등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는 '친환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제작된 태양광 랜턴은 전기수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의 아동들에게, 천연비누와 입욕제 등은 저소득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03 '어린이 녹색에너지 나눔 체험학습' 참가단체 모집

7월 15일(화)부터 우리재단은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함께 '어린이 녹색에너지 나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시, 그림사 인형극, 태양광 랜턴 조립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5~7세 아동으로 구성된 30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miral.org)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04 온라인 서포터즈 밀알은 4기 발대식

7월 17일(목), 온라인으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밀알복지재단 SNS 서포터즈 밀알은 4기 발대식이 열렸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뭉친 밀알은 4기 서포터즈는 블로그 포스팅, 오피라인 캠페인, 나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모습으로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다.

05 해외파견직원 귀국보고회 진행

7월 28일(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정진희 전문봉사자와 최현정 행정간사를 환영하는 귀국보고회가 있었다. 정진희 전문봉사자는 중국 연길 밀알학교에서 2년 2개월 동안 특수교육을 담당했으며, 최현정 행정간사는 라이베리아 자갈마을에서 1년 동안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06 제34회 '밀알 사랑의 캠프' 열려

8월 5일(화) ~ 8일(금), 제34회 '밀알 사랑의 캠프'가 열렸다. 전국의 산하시설 및 법인사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 350여명의 봉사자들은 450여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사모에 대해 이해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우리재단의 실천목표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07 '특별한 지도그리기', MBC <나누면 행복> 통해 방영돼

8월 21일(목), MBC <나누면 행복>을 통해 '특별한 지도그리기' 활동이 소개되었다. '특별한 지도그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중도장애인 유경재씨와 함께 장애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을 체크해 지도를 그리는 모습이 방송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08 캠프 기부금 전달식

8월 21일(목),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서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캠프와 임직원간의 1:1 매칭그랜트 기부로 마련된 3억 5천만원은 저소득 신장환자의 수술비와 생활안정자금, 자활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9 후원회원 네팜 해외사업장 방문, 'Let's go Together!'

8월 11일(월) ~ 18일(월), 우리재단 해외사업장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아동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회원참여 프로그램 'Let's go Together!'가 진행되었다. 총 9명의 후원회원이 참여하여 오래도록 잊지 못할 가슴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산하시설 소식



01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신나는 여름학교' 진행

7월 29일(화) ~ 8월 1일(금),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나는 여름학교'를 진행했다.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눈 마주치고 관찰하기', '힘을 모아 함께 활동하기' 등을 통해 아동들의 표현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0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슈퍼맨이 돌아온다!'

7월 30일(수), 맑은샘 태교연구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아씨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좋은 아버지의 역할, 우리 아이 두뇌발달 놀이법, 책 읽어주는 방법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내 가족에게 하는 프로젝트로 색종이 톨립 꽃다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아버지 모두 가족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03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4 장애인척척이동진료사업' 실시

7월 18일(금) ~ 8월 8일(금)까지, 서울시 장애인척척이동진료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였다. 근로장애인 100여명은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진료를 받았다.

04 밀알보호작업장, 사회적응훈련 '수락산 계곡 여행' 진행

7월 23일(수), 밀알보호작업장 이용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수락산 계곡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통해 지역사회 시설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05 밀알베이커리, <배비장전> 공연관람

8월 9일(토), 서울복지재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후원으로 정동극장에서 <배비장전>을 관람하였다. 우리 몸짓에 기초한 춤사위, 장단과 선율,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06 우리플러스작업장, '남한산성 계곡 놀이' 실시

7월 22일(화), 직원들과의 단합과 협동심을 키우고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놀이를 다녀왔다. 빙고게임,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여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등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7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세계 패트럴 캠퍼리 나눔 캠페인 진행

8월 1일(금) ~ 5일(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경북 상주 챔버리장에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난 5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유스필란트로피(청소년나눔활동)와 기증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08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주)오투기와 함께 빅센 야구 경기 관람

7월 1일(화), 목동야구장에서 진행된 넥센과 롯데 야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이번 야구 관람은 도봉점을 후원해주는 (주)오투기에서 마련해준 자리로,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이주석' 사원이 시타자로 나서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09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기자단 '틴에이지 리포터' 노인인식조사

7월 19일(토),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기자단 '틴에이지 리포터'가 노인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자단은 노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하시설 소식

산하시설 소식



10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상반기 운영간담회 실시

8월 7일(목),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3 먼일어린이집, 물빛 놀이터 현장학습

7월 10일(목), 먼일어린이집에서는 여름을 맞이하여 유아반 아동들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내 물빛 놀이터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

16 밀알학교, 계절 문화 체험의 날

7월 11일(금), 여름을 맞이하여 밀알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아동들이 세종시 베어트리 파크에서 '계절 문화 체험의 날'을 가졌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1 도봉실버센터,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진행

8월 6일(수)~7일(목) 도봉실버센터는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아름다운 동행-수호천사'를 실시하였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4 목련어린이집, '큰 삼촌 외갓집' 체험 활동

8월 13(수), 장매동 방과 후 학급(공통반)의 방학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양평 신원리에 '큰 삼촌 외갓집' 체험 활동을 다녀왔다. 아동들은 옥수수 수확, 맨손으로 송어잡기, 뱀목놀이, 물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숲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 균형감과 감각 조절력을 체험하며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17 부산지부,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진행

8월 27일(수)~29(금), 부산지부는 해운대 벅스코(BEXCO)에서 열린 '2014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에서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경남 및 부산 지역의 기업과 관람객에게 우리재단을 알리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12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IBK연금보험과 차량 전달식

7월 10일(목), IBK연금보험과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그간 한 대의 차량으로 활동해 오던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이용자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5 밀알주·단기보호센터, 여름캠프 실시

7월 9일(금)~10일(토), 밀알주·단기보호센터 이용자와 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외갓집 체험 마을로 캠프를 다녀왔다. 감자캐기, 송어잡기, 뱀목놀이, 황토머드팩, 고무모종심기, 인절미떡메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8 부암어린이집, 신나는 여름캠프 다녀왔어요!

7월 17일(목)~18일(금),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영유아반 아이들과 함께 파주 임실치즈 마을에 가서 치즈와 피자를 만들었으며,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원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값진 추억을 만들었다.

19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화재 모의 대피훈련 실시

8월 14일(목), 화재 발생 시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재 모의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는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매월 화재 모의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2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LG화학과 함께 제4회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개최

7월 28일(월)~8월 2일(토), 제4회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사랑 아우르기'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자원봉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장애체험, 환경정화활동, 자원봉사 캠페인, LG화학 주니어 화학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25 창마을어린이집, 단어퍼레이드 축제

7월 22일(화), 1학기 동안 배운 단어들을 바탕으로 단어퍼레이드 축제를 진행했다. 과일을 이용한 과일 젤리 만들기, 산책로에 있는 자연물을 찾아보는 활동, 거품을 이용한 목욕놀이와 설거지놀이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놀이를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20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봉사

7월 2일(수)~3일(목), 양일 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봉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임가공 작업 도우미로 나선 성남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봉사시간 내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성실하게 작업에 임했다.

23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상반기 야의 나들이

7월 19일(토), 어르신들과 인천공항 전망대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들을 보며 어른가 떠나는 것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인천대교를 건너 안산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잠시 정차해 바다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들이를 마무리 했다.

26 중림어린이집, 즐거운 롯데월드

7월 18일(금), 중림어린이집에서는 현장학습으로 롯데월드에 다녀왔다.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1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로 통해요! '나도 장금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전통문화로 통해요! 전통문화재민이 어르신들과 어린이집 아동들이 함께 전통음식(백설기, 수박 화채)을 만들어보고 나눠 먹는 '나도 장금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아동들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4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찾아오는 기금사업' 핸드프린팅

7월 25일(금),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은 '찾아오는 기금사업'으로 진행된 핸드프린팅 행사를 체험했다. 이용자들은 손 외에도 발, 팔꿈치 등 신체를 이용하여 프린팅을 체험했으며 화려한 물감을 재료로 한 개성있는 액자를 만들기도 했다.

27 한우리주간보호시설, '제6회 하계캠프' 실시

7월 9일(수)~11일(금), 한우리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20여명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농촌체험을 하였다. 물놀이를 송어잡기, 감자캐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2014년 상반기 밀알복지재단 선물보내기 캠페인 결과보고

회원님의 사랑이 담긴 어린이날 선물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던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선물금은 아시아 1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 사업장에 전달되었습니다. 각 사업장 담당자들은 현지에서 꼭 필요했던 물품을 구입하고 나누어주며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진행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2014년 상반기 선물보내기 캠페인 진행 (4.14 ~ 6.20)			선물금 송금 & 선물 구입 및 전달	결과 보고

지원 국가

네팔, 우간다,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아이들에게 전달 된 선물과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팔 (준데비스 사업장)

신나는 놀이터가 생겼어요!

준데비스 사업장 운동장에 미끄럼틀과 그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놀이기구와 함께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팔 사업장에 공용 컴퓨터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선물을 변경하여 전달 된 점에 대하여 양해바랍니다.



우간다 (쿨루 사업장)

물과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우간다는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된 걸옷을 마련하기 어려워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곤 합니다. 우간다 쿨루 사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131벌의 따뜻한 스웨터를 전달했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새 옷 선물에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사업장)

급식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집에서 가져온 제각각의 식기들로 비위생적이고 불편하게 급식을 먹었던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기와 손가락을 선물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395명의 아이들은 편리하고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시에라리온에는 올해 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영문 도서를 구입하여 전달 할 예정입니다. 현지 사정으로 대량의 도서를 바로 구입하기 어려워 일정을 지연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2014년 하반기 선물보내기 캠페인 결과보고 시 공개 될 멋진 도서관을 기대해주세요.
- 2014년 11월 하반기 선물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월 소식지 회원공지

회원님의 개인정보, 왜 필요할까요?

1. 회원님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통해 재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변화된 국내·외 이웃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후원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예시

문자



"회원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통합 밀알콘서트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회원님! 회원이벤트에 참여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소식지



"회원님의 나눔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2.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밀알복지재단 후원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내역 조회 및 출력,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안내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

1.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한다!

www.miral.org ▶ 나의후원공간 ▶ 나의후원내역 ▶ 로그인 ▶ 나의회원정보 조회 / 변경

* 아이디가 없으신가요? 밀알복지재단 후원자인 경우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밀알복지재단 회원전화번호로 전화한다!

회원전화번호 1600-0966을 통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양**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하기





에너지나눔 제1회 대축제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2014.10.3 (금) 11AM~8PM

과천서울대공원 분수대광장

행사프로그램

- 11:00 ~ 17:00 : 에너지 절약 & 나눔 체험
태양광발전조립 / 아프리카나눔체험
선물이 쏟아지는 현장 참여 이벤트
- 17:00 ~ 18:00 :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나눔 이벤트
MC : 개그맨 한병수 (코빅, 웃찾사 출연)
- 18:00 ~ 19:00 : 미라클 콘서트 - 기적을 노래하는 사람들
출연 : 유승우, 백아연, 손진영, 갈릭스 등
- 19:00 ~ 20:00 :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코스 : 2.2 Km)
코스 중간 미션 수행

본 행사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해외빈곤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 축제입니다.

문의전화 : 070-7462-9070 (개인, 단체 참가신청 / 자원봉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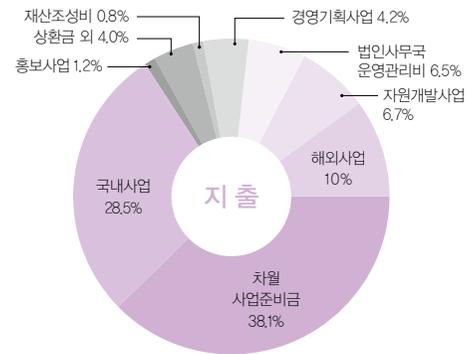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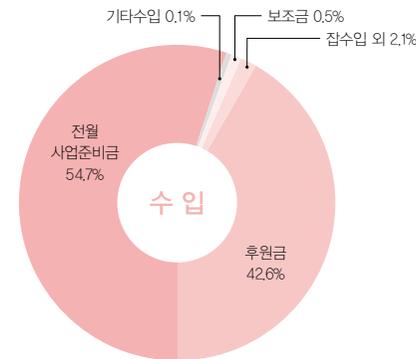
주최: 밀알복지재단

후원: LG생활건강 Luxorbis EM STAR earth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사 Hanwona Co., Ltd

HANSA TOY TMON

2014년 7월~8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구분	금액	구성비
수입총계	5,506,983,761	100.0%
보조금	28,049,900	0.5%
경상보조금	6,778,000	24.2%
기타보조금	21,271,900	75.8%
후원금	2,345,685,510	42.6%
비지정후원금	1,364,933,732	58.2%
지정후원금	980,751,778	41.8%
기타수입	3,000,000	0.1%
재산수입	0	0.0%
전입금	0	0.0%
잡수입 외	117,843,792	2.1%
전월사업준비금	3,012,404,559	54.7%

구분	금액	구성비
지출총계	4,232,264,741	100.0%
법인 사무국 운영 관리비	276,644,332	6.5%
인건비	210,124,653	76.0%
업무추진비	7,600,355	2.7%
운영비	58,919,324	21.3%
국내사업	1,203,380,086	28.5%
장애인복지사업	891,262,287	74.0%
배분기획사업	30,498,870	2.5%
노인복지사업	217,560,699	18.1%
지역복지사업	30,858,230	2.6%
아동복지사업	13,200,000	1.1%
기타사업	20,000,000	1.7%
해외사업	419,733,719	10.0%
아동결연사업	118,893,578	28.3%
아동지원사업	14,501,453	3.5%
장애인지원사업	40,141,916	9.6%
보건의료사업	24,392,879	5.8%
분야별특별사업	131,419,737	31.3%
긴급구호사업	38,902,641	9.3%
해외사업국운영지원	20,211,575	4.8%
국제협력사업	31,269,940	7.4%
자원 개발사업	283,908,601	6.7%
미디어개발사업	27,655,897	9.7%
온라인사업	50,953,482	18.0%
교회사업	9,641,845	3.4%
회원서비스사업	102,801,417	36.2%
CSR협력사업	92,855,960	32.7%
홍보사업	51,720,830	1.2%
브랜드홍보	51,020,280	98.6%
온라인홍보	215,450	0.4%
휴먼홍보	444,120	0.9%
CPS홍보	40,980	0.1%
경영기획 사업	178,760,117	4.2%
교육연구사업	6,429,010	3.6%
전산개발	11,654,299	6.6%
기획사업	148,083,470	82.8%
조직강화사업	12,593,338	7.0%
재산조성비	34,750,070	0.8%
상환금 외	169,236,008	4.0%
차월사업준비금	1,614,130,978	38.1%

2014 Firm of the Year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의 한국 로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Top Tier Firm 선정
Chambers Asia, IFLR1000,
Asia Pacific Legal500 2014 Edition

구조화금융거래 부문 수상
IFLR 2014

M&A 부문 수상
Asian-MENA Counsel 2013



법무법인 세종
SHIN&KIM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 (우 100-052) TEL: 02 316 4114
북경사무소 : 1008 Air China Plaza, No. 36, Xiao 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P.R. China TEL: +86 10 8447 5343

[국내 사업장]

| 법 인 사 무 국 | 02-3411-4664
경 남 지 부 1600-0966
전 남 지 부 1600-0966
전 북 지 부 1600-0966
부 산 지 부 051-853-4665

| 장 애 인 복 지 사 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월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월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밀알그린보호초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림출 동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림출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림출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학 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지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 산 밀 알 센 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아름드리그림출 031-414-3171
옥수그림출 031-705-3398
온유한센터 031-418-9863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 노 인 복 지 사 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노년종합복지관 02-3474-608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 지 역 복 지 사 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 아 동 보 육 사 업 |
면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 문 화, 일 자 리 사 업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 사업장]

기 니 비 사 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 팔 +977-1-431-5485
라 이 베 리 아 +231-886-668097
레 바논 +961-7049-1615
마 다 가 스 카 르 +261-2022-44496
말 라 위 +265-992-129-931
방 글 라 데 시 +880-171-510-7842
베 트 남 +84-903-391-568
시 에 라 리 온 +232-76-606074
아 이 티 +1-917-648-1199

에 티 오 피 아 +251-911-760-422
우 간 다 +256-776-771-324
우 크 라 이 나 +38-0974-338-961
이 스 라 엘 +972-52-547-1422
중 국 +86-133-448-7401
케 나 +254-732-625-987
탄 자 니 아 +255-754-344-495
코 트 디 부 아 르 +225-0705-8783
태 국 +66-86-191-6122
필 리 핀 +63-922-739-7017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